

아치에스 훈화

아치에스는 군대로 치자면 사열식입니다. 군인들은 사열식을 통해 자신의 직속상관과 만나고 자신의 명령권자가 누구이며, 누구의 뜻을 전하고 누구의 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고 결속하게 됩니다.

우리 레지오는 성모님과 일치하고 성모님께 의탁하여 활동하는, 성모님의 군대입니다. 그러기에 레지오의 사열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치에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활동해야 하는 영적 군인들인지 되새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P260)

아치에스를 통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새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의식으로 뭉쳐지기 위하여 우리는 레지오의 근본 바탕을 반복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레지오의 근본정신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레지오의 정신은 이렇습니다.(P28)

레지오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지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과 협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 나의 활동과 봉사에 대한 성실함과 그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리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느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또 이 육신과의 싸움길에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냉담하고 미혹함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으로 결속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히 자신을 봉헌하셨던 한 모델, 파견된 자로써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스스로를 헌정하셨던 유별났던 한 신앙인을 그 모델로 삼아 그의 전구로써 나 또한 것처럼 살고 것처럼 말하며, 것처럼 선택하고 싶은 바람과 협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아 그를 닮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결코 교회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로 한정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4항, 평신도 사도직의 영적생활에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의 영적 생활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충동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갈라 6,10) 선을 행하며,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1베드 2,1)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로마 5,5) 하느님의 사랑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진복팔단의 정신을 표현하도록 한다. 가

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현세 재물이 결핍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풍족하더라도 교만 해지지 않는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허영을 탐하지 않으며(갈라 5,26), 사람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에 들려고 힘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모든 것을 버릴 각오와(루가 14,26),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할 각오가 서 있으며(마태 5,10), “나를 따르면 자기를 끊어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태 16,24)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서로 그리스도교적 우정을 닦으며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평신도 영성생활의 완전한 모델은 사도들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지상 생활 중에서 가정을 돌보시고 일에 쫓기면서도 언제나 당신의 아들 천주 성자와 결합되어 계셨으며, 구세주의 성업을 전혀 독자적인 방법으로 거들어 드리셨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지금은 “당신 모성애로써 아직 나그네 길에서 위험과 곤란을 겪고 있는 성자의 형제들을 행복한 고향에 인도될 때까지 돌보아 주신다.” 모든 평신도들은 성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며 자신의 생활과 사도직을 성모님의 모성적 배려에 맡겨 드려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닮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 전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거듭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적인 가치를 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기쁨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는 일이 매번 바쁘고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마리아의 도움에 온전히 의탁하는 이 레지오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레지오라는 권위주의 명령과 복종, 위계와 질서라는 딱딱한 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트러진 나의 신앙을 다시금 마리아의 정신으로 바로 잡고, 마리아의 자세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오로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헌정해 드리도록 합시다.

신앙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레지오 아치에스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 공통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결실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레지오 단원님 모두의 영적 투쟁을 마리아께 대한 믿음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